

‘연일 최고점’ 연말 더 상승?... “기업 실적·수급력 살펴야”

코스피, 지금 올라타도 될까

이달들어 245개 종목 신고가 행진 대신·NH “올해 상승추세 지속”
키움 “불확실성 남아 밸리 제한”
DB “실적·수급 갖춘 업종 집중”

‘국장(국내 주식시장) 유턴은 지능순.’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신조어 중 하나다. ‘열심히 일한 돈 주식에 투자했더니 나도 모르게 통장이 두둑해졌다’라는 기대와 희망의 정서가 배어 있다. 시중에는 “누군가의 자산 형성은 ‘이재명 정부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말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침체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20~30대의 부(富)의 사다리가 되살아 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코스피지수가 12일 3395.54까지 치솟으며 34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으로의 에셋 파킹(Asset Parking)’이 일어났다”면서 리스크관리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주문한다.



ChatGTP로 생성한 ‘올라가는 코스피 증시를 기대하며 투자 분석 중인 투자자들’.

◆증시로 증시로, 자금 쏠림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주요 3대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시중 돈은 증시로 향한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9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23조7997억원이다. 특히 옐론 박스권을 돌파해 4년여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 코스피 불장의 신호탄을 올린 지

난 10일에는 29조590억원으로 전날보다 4조2800억원(17.3%)가량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증시 대기자금도 큰폭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투자자예탁금은 11일 기준 71조118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7.1% 증가했다.

증권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미국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 여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 상승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신뢰가 재확인되면서 정책 모멘텀(동력)이 회복된 가운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코스피는 현재보다 연말 레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코스피 추가 동력은 ‘실적’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달들어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245개다. 전체 상장 주식 10개 종목 중 1개 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평가한다. 화폐가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등 뭐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소위 ‘자산시장으로의 에셋 파킹(Asset Parkin

g)’이다. 이런 흐름에서 현금 보유는 가장 위험한 투자로 전락했다. 현금 자산은 일종의 풋옵션(디플레에 베팅하는) 투자가 된 것이다.

시장 한편에서는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투자자들이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속 선별투자를 주문한다. 최근의 코스피의 급등세가 기업 실적이나 경기 회복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주주환원 확대, 자본시장 개편 등 정책 모멘텀(동력)에 의한 것이어서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국내 상장사의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코스피의 추가 밸리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며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는 지속하향 되고 있다”고 짚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도 “코스피의 사적 신고점 경신은 정책 모멘텀에 의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도했으나, 향후 성과는 실적과 수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실적 기대감과 수급이 동시에 모이는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0대 그룹 시총 600조 ↑... 한화·HD현대 ‘100조 클럽’

KRX, 상장사 219곳 시총 2100조
한화, 시총 증가율 164% ‘1위’ 차지
증가율 2위 미래에셋 150% 급등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주요 대기업의 시가총액도 연초 대비 6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총은 2099조8306억원이다. 올해 1월 2일 1500조2219억원 보다 40.0%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영풍(30위)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증가했고, 삼성·SK 등 5개 그룹을 제외한 25개 그룹의 순위가 바뀌었다.

시총 증가율 1위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의 시총은 44조8068억원에서 118

조1583억원으로 163.7%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 219개 상장사 중 시총 증가액 3위를, 한화오션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증가율 2위에 오른 미래에셋의 시총은 5조8826억원에서 14조7285억원으로 150.4% 뛰었다. 이는 상법 개정 영향으로 증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급등한 결과로 풀이된다.

효성은 7조2596억원에서 17조4874억원으로 140.9% 늘며 3위를 기록했다. 10조원이 넘는 증가분의 대부분은 효성중공업에서 나왔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와 고수의 전력기 수요에 힘입어 시총이 242.7% 불어났다.

두산은 원자력 모멘텀을 타고 시총이 138.8% 늘며 4위에 등극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5685억원에서 40조991억원으로 246.6% 급증했다.

LS는 12조3654억원에서 20조6857억원으로 67.3% 증가하며 5위에 자리했다. 주력사 LS일렉트릭의 시총이 77.9%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설비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HD현대는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며 6위를 차지했다. 증가액만 52조원에 달해 금액만 놓고 보면 한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로써 HD현대 역시 한화와 함께 새롭게 ‘시총 100조원’ 반열에 올랐다.

SK는 시총이 200조3384억원에서 319조6166억원으로 59.5% 증가해 7위에 올

랐다. 이어 농협(57.5% ↑), HMM(56.1% ↑), 카카오(50.1% ↑) 순이었다.

시총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삼성은 503조7408억원에서 674조9706억원으로 34.0% 늘며, 30대 그룹 전체 시총의 약 32%를 차지했다.

SK는 2위를 지켰고, 3위와 4위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현대차가 135조1076억원에서 172조1879억원으로 27.4% 증가하며 LG를 제쳤다. LG는 3.0% 늘어난 145조588억원으로 4위로 밀려났다.

HD현대 5위 자리를 유지했고, 한화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이밖에 두산은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고, 포스코는 다른 그룹들의 가파른 성장세에 밀려 8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2025 투자역량 어워즈 국내 최고성과 기록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 대표 금융전문지 디 에셋(The Asset)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고 투자역량 어워즈(Most Astute Investors Awards 2025)’에서 국내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어워즈에서 ‘최우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G3 Bonds ?Best in Portfolio Management)’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동시에 ‘최우수 채권 투자기관(G3 Bonds·Top Investment Houses)’부문 우수기관(Highly Commended)으로 선정됐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G3(달러·유로·엔화) 채권 시장에서의 운용 전문성과 투자 역량,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파워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디 에셋은 아시아 주요 경제전문가들이 구독하는 대표 금융 전문지로, 매년 아시아 지역 채권·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셀사이드(Sell-side)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탁월한 투자 통찰력과 운용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한다. 최근 조사에는 900명 이상의 전문가와 600여 개 투자기관이 참여해 공신력을 더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재현 채권부문대표는 “이번 수상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역량과 리더십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증권주, 단기적 ‘약세’... 투자 의견은 ‘비중확대’

KRX증권지수 0.54%오른 1468.81
‘대주주양도세 기준 유지’ 선반영
상법개정안 등 발의, 재평가 가능성

증권주가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지난 12일 전일 대비 0.54% 오른 1468.81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억원 하향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현행 50억원 기

준 유지에 무게를 실었음에도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차익 실현매물이 원인이라고 거론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지주 업종에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지만 현재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주가선반영으

로 인한 재료 소진 인식에 증권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9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부각시키자 이튿날 KRX증권지수는 7.19%

급증했다. 증권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미래에셋증권(11.68%)과 키움증권(8.71%)이 크게 올랐다.

한편, 차익실현으로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친자본시장 정책에 따라 증권주의 상승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 법안 발의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하반기 증권업종 투자 의견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최건우 기자 geon@